

건강 칼럼

One Health(원 헬스)로 가야하는 이유?

갑 자기 뭘 소리냐? 할 수도 있다. 대체 뭘 말인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할 수도 있다. 세상이 복잡해져 갔다. 한 데 뒤엎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못 궁금해지기도 한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One Health란 인간의 건강이 동물, 식물, 환경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통합 보건 체계이다.

그럼 이 원 헬스가 왜 중요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이런 개념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왔다.

1. 인수 공통전염병의 증가 및 년 전 유행한 코로나, 메르스,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등은 약 75% 정도가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었다. 밀집된 공간에 수많은 사람, 동물이 함께 살다보니 서로가 아주 비슷한 환경에서 세균, 바이러스도 유사하게 진화를 하는 것이다.

2. 지구 온난화와 환경 변화: 40~50년 전보다 겨울이 훨씬 따뜻



이 윤 희 (주)파시코 대표이사

해졌다. 남방식물, 과일이 제주도, 남부해안에서 재배되고, 아열대 생선도 잡혀서 식탁에 올라온다. 기온이 오르면서 모기, 해충, 진드기 같은 매개체가 서식지를 넓히며 질병 확산 범위가 커지고 넓어지고 있다.

3. 생태계 파괴: 급증하는 육류생산, 공급을 위해 사료작물이 필요했고 경작을 위해 정글, 자연림, 밀림을 개간하다 보니 숲을 파괴하고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빈번해졌다. 그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 혼란스러워져 이전에는 그 숲안에 잠들어 있기에 마주칠 수 없던 바이러스가 인간

사회로 유입되어 각종 유행병을 일으킨다. 준비가 안 되어 있기에 그 피해를 예상하기도, 막기도 힘들고 점점 어려워져간다.

4. 항생제 내성: 살면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각종 심신의 고통을 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약에 의존성이 더해져간다. 이른바 '미시신'이라는 항생제의 오, 남용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과량, 반복사용에 따라 내성이 생겨 더욱 강하고 센 항생제를 찾게 된다.

더구나 축산업에서 사용되는 항생제가 먹이사슬과 환경을 통해 인간

에게 전달되어 얽힌 데 달친 격으로 치료가 어려운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기에 핵심요인인 3가지 영역의 균형이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한다.

1. 사람: 질병예방, 공중보건 체계 강화, 만성질환 예방,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2. 동물: 가축, 반려동물의 개체수 조절, 전염병 예방, 관리 야생동물 보호 및 관찰이 필요하다.

3. 환경: 수질, 토양의 오염 방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계 보전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의 주원인이기도 한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하여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조력 등 대체, 재생에너지원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사람만 건강해서는 진정으로 건강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물, 환경에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관리하는 제도가 One Health'임을 자각하고

더구나 축산업에서 사용되는 항생제가 먹이사슬과 환경을 통해 인간

기고문

'단 한번의 방심·위반이 생명을 앗아간다'

최근 관내 교통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매일 도로 위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마주한다. 교통 사망사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하다. 사고의 상당수는 피할 수 있었고, 그 출발점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가 있었다. 유가족이 던지는 질문, "왜 막을 수 없었습니까?"에 대한 답 역시 결국 '기본의 부재'로 귀결된다.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치다. 그럼에도 "잠깐이니깐", "가까운 거리니까"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이를 외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사고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단 한번의 충격에도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여부는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여기에 더해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와 규정속도 준수 사고 예방의 핵심이다. 운전 중 환승건의 방심, 휴대전화 사용이나 주의력 분산은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운전은 위급 상황에서 대응 시간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치명적으로 키운다. 규정속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



송 경 민 무주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경장

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경찰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과속, 주의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은 단속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도로 위 모든 구성원이 기본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교통사망사고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외면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비극이다. 안전띠를 매고, 안전모를 착용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지키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생명을 지킨다.

단 한 번의 미착용, 단 한 번의 방심, 단 한 번의 과속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 도로 위에서는 단 한 순간의 예외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레비는 총리와 악수하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오른쪽) 프랑스 대통령과 나외프 샬랑 레비는 총리가 2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영토 이득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설

전주 한옥마을 내 강암서예관

강암(剛庵) 송성용(宋成鎭, 1913~1999)은 한국서예의 독자적 경지를 이룬 호남을 대표하는 서예가이자 유학자이다. 그는 김제 백산면의 요교마을에서 송기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적에 몸이 약하여 호(號)를 강암(剛庵)이라 하였다. 일찍이 진, 예, 해, 행, 초 5체는 물론이고 대나무, 난초, 매화, 국화, 소나무, 파초, 괴석 등 다양한 소재의 문인화에 일가를 이루었다. 1956년 주변의 권고에 못 이겨 서예대전에 출품·입선하자 이름이 알려졌다. 그는 유학자로서 일제 강점기에도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고, 평생을 한복을 입었다. 강암의 작품은 호남은 물론 전국 각지에 비문, 현관을 비롯해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말년에는 평생을 모았던 작품과 6억 원의 기부

하여 한옥마을 내에 강암서예관을 설립했다. 강암 송성용은 부친 유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유재는 간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간재(干齋) 정우(鼎愚, 1841~1922)는 20세에 퇴계집(退溪集)을 보고 크게 깨우쳤다. 여러 직책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한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간재는 을사조약을 처형하고 조약을 파기할 것을 상소한다. 이후 계화도로 거처를 옮겨 후학을 양성하니 제자가 3천명을 넘었다고 한다. 유재(裕齋) 송기면(宋基堧, 1882~1956)은 초년에는 열 마를 석정 이정직의 문하에서 문장·서화·역산(曆算) 등을 두루 배웠고, 단년에는 간재의 문하에서 성리와 의리에 관한 학문을 받아들였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故 강계열 할머니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나온 강계열 할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향년 102세. 1924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황성에서 자란 고인은 14살 때인 1938년 9살 연상인 남편 조병단씨를 만나 결혼했다. 2010년 7월11일 황성신문에 '황성 5일장 노년(老年) 스타 부부'라는 제목으로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어 SBS TV '스페셜 짝'에 이어 KBS 1TV '인간극장-백발의 연인'이 방송됐다. 2013년 12월 조씨 타계 후 2014년 11월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개봉했다. 부부의 일상과 조씨의 죽음을 그린 이 영화의 관객 동원(480만명) 기록은 역대 독립영화 1위이다. 양지은의 노래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이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으로 알려졌다. 다류엔터티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OST가 된 노래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곤 한다. 이 노래는 단순한 이별 노래를 넘어, 한평생을 함께한 노부부의 지고자순한 사랑과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순간을 너무나도 담담하게, 그리고 아련하게 그려내고 있다.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76년을 함께 해온 98세 할아버지와 89세 할머니의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아내며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